

물어보는 노동

‘노동은 힘든 것이다. 노동은 천박한 것이다. 노동은 거칠다.’ ‘노동’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인간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를 노동자와 비노동자로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노동’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상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인간의 마음과 품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의 활동이 ‘노동’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가족을 위해 대가 없이 일하는 가사노동이나,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직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는 감정노동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단순히 임금을 받기 위한 활동으로 한정 지어서는 지금 우리의 노동을 더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1970년 전태일이 외쳤던 인간 선언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였습니다. 2022년의 인간 선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여러 사회적 인식을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것만이 ‘노동’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포함된 성취감과 만족감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 활동을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자’상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노동’이 지닌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노동자’라는 말 뒤에 가려진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까닭입니다.

<연속 기획-물어보는 노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시각 예술계에서 ‘노동’ 혹은 우리의 ‘삶’을 주제로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 나가는 예술노동자에게 노동과 사람에 관해 묻습니다. ‘노동’에 담긴 사회적 인식을 시각예술을 통해 뒤집어 보는 시간과 공간을 전태일기념관에 마련합니다. 예술노동자의 사유를 살피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노동’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모두 노동자임을…….

강재영(전태일기념관)

정정업 작가 약력

1962년 전라남도 강진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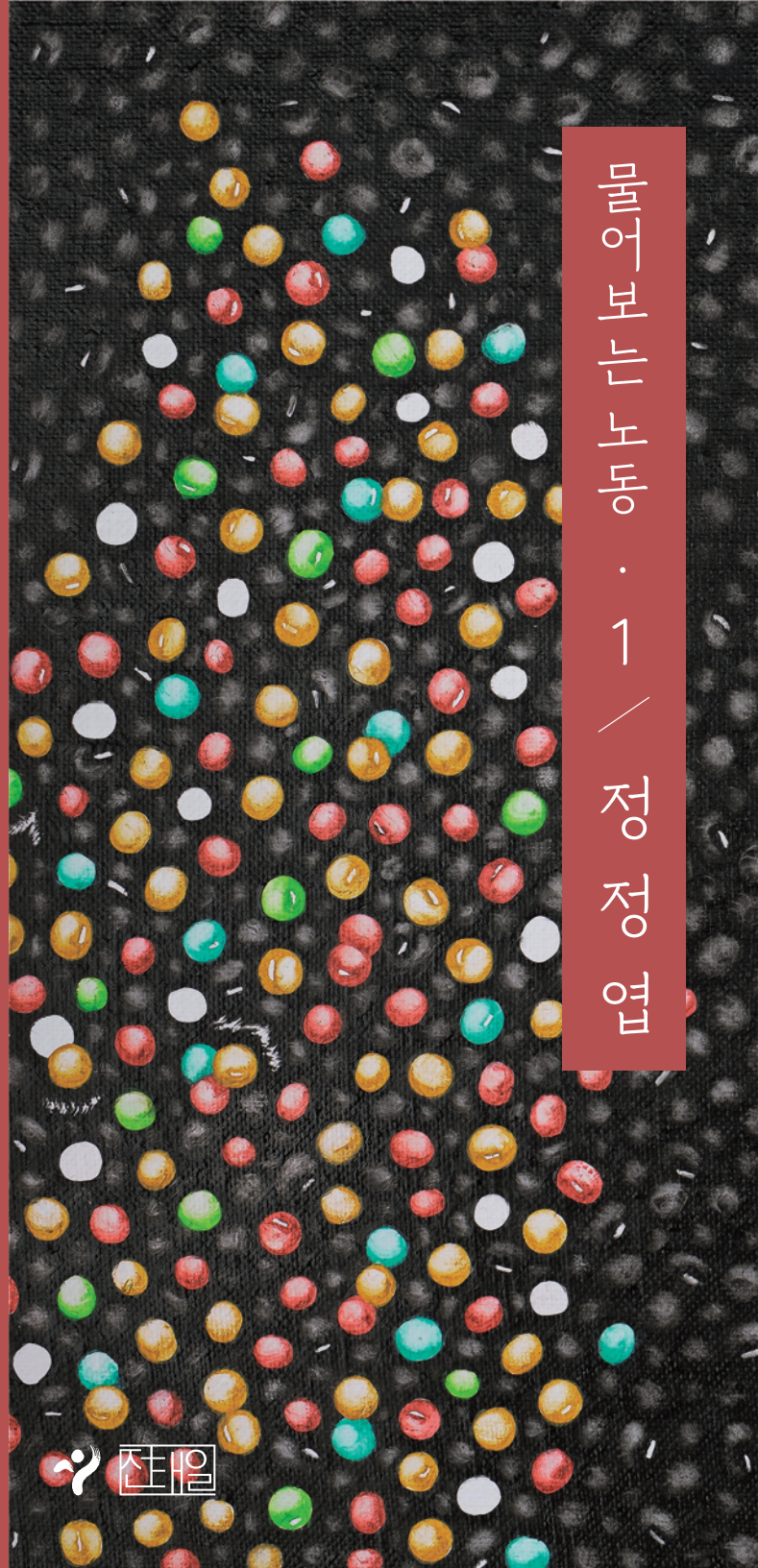
정정업은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삶과 생명을 중심에 두고 회화와 퍼포먼스 등의 예술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 미술패 ‘갯꽃’을 주도했고, ‘공동창작 미술 집단 ‘두렁’에 참여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 ‘여성미술연구회’, ‘입김’ 등 여성주의 미술운동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1995년 첫 개인전 《생명을 아우르는 살림》으로 자신의 작업 세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여, 2000년 개인전 《봇물》 이후 생명의 원천이자 인간과 공존하는 동식물에 품은 에너지를 담은 붉은 팔과 곡식 작업을 계속해왔다. 2021년 개인전 《걷는 달》에서 <얼굴풍경>, <최초의 만찬>과 같이 동시대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등에서 열린 국내외 다수의 기획전제에 초대받아 참여하였다.

‘이중섭미술상’(2022),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2020), ‘제4회 고암미술상’(2018) 등의 수상으로 작품세계를 인정받고 있다. 출판물로 『한국현대미술선 002 정정업』(2018)과 『나의 작업실 변천사』(2018)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아르코미술관,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전시 정보

제목 | 2022 전태일기념관 노동복지기획전 연속기획 《물어보는 노동 1: 정정업》
기간 | 2022. 6. 14. (화) ~ 2022. 8. 21. (일)
전시장소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특별전시장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전시총괄 | 오종진
전시기획 및 진행 | 강재영
자문 | 권순우 백지홍
전시 홍보 진행 | 강승연
전시 연계프로그램 진행 | 오종원
공간 시공 | 남이디자인
그래픽디자인 | 크리에이티브 보타, 강재영
영상 촬영 및 편집 | 디그리고디
행정지원 | 김영선 유현아 홍국주
현장지원 | 박병구 김연옥 윤성우
도움 | 김슬지(더블데크웍스)



작품 소개

‘물어보는 노동’ 첫 번째 전시에는 정정엽의 1980년대 목판화부터 2022년 회화 신작까지 총 13점을 전시합니다. 1987년부터 작업한 <노동판화> 연작에는 노동의 친근함이 담겨 있습니다. 정정엽은 인천에서 노동자와 연대하며 미술 작가로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가 그린 사람들은 비단 ‘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규찰을 서면서도 책을 보는 모습이나 아내와 이불을 껴매며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노동이 일상에 스며든 사람들을, 일상으로부터 노동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렸습니다.

<얼굴풍경>은 전태일과 어머니 이소선, 그리고 장애인 인권운동가 최옥란의 얼굴을 그린 연작입니다. 정정엽은 삶의 길 속에서 앞장선 사람들에게 동시대적인 우정을 느끼고 이들의 초상을 그렸습니다. 전태일(1948~1970)의 얼굴에서 마음에 담긴 세상의 온기가 보입니다. <노동자의 어머니-이소선>은 작가가 이소선 어머니(1929~2011)를 작고하기 전 해에 뵈고 그 유머러스함과 당당함, 따뜻함을 담아낸 그림입니다. 또 다른 초상은 장애인이자 어머니였던 최옥란(1966~2002)입니다. 정정엽은 2002년 양육권과 수급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괴로움에 자살을 시도하였던 그를 신문 기사로 만났습니다. 작가는 최옥란 얼굴에 담긴 세상을 향한 불편함과 통쾌함을 그리고, 이후에 아들이 전하는 마음을 새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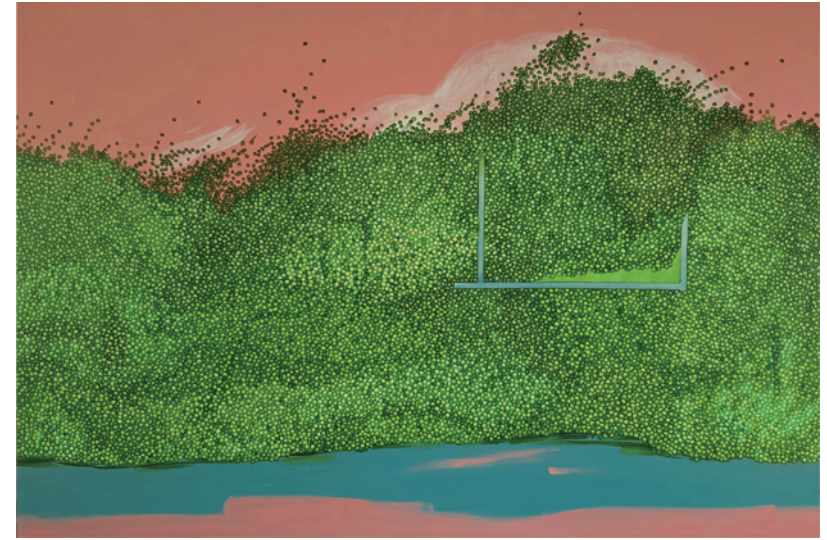
<촛불 콩> 연작에서 고유한 빛깔로 반짝이는 콩 한 알 한 알이 보입니다. <촛불1>은 2016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들고 있던 빛을 그린 것입니다. 정정엽의 그림에서 생명을 간직한 씨앗은 민주주의의 씨앗, 자존의 불꽃과 닮았습니다. 노동의 땀방울로 길러낸 씨앗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서, 우리로부터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작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과 우리의 노동,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지녀야 할 자존을 무수한 알갱이들로 엮어냅니다.

<봄나물> 연작에서는 1991년 작품 <어머니의 봄>과 2012년 <마을-냉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정엽은 여성의 노동을 거쳐 밥상에 오르는 땅의 기운을 눈여겨봤습니다. 가시화되지 않는 무수한 여성의 노동이 이 연작에서 표현됩니다. 작가는 또한 날것인 풀들의 강인함과 조화 속에서 거대 자본과 문명사회에 대비되는 자연스러운 숨결을 보여줍니다. 정정엽의 40여 년간의 노동이 스민 그림은 한결같이 삶과 유리되지 않는 노동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마주하며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아야 하는 것들, 그림에도 오늘날 ‘노동’이라는 말에 담겨야 하는 것들을 떠올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규찰을 서며 종이에 목판 55×40cm 1989

벽 앞의 웃음-최옥란 캔버스에 아크릴릭 162×130cm 2018-2021



튀어오르는 봄 캔버스에 유채 130×194cm 2022

마을-냉이 캔버스에 유채 162×130cm 2012

